



KOCHAM ECONOMIC REPORT

제 2013-44 호

2013년 10월 21일(월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연방정부의 예산삭감, 미 경제에 악영향
- 2) 미 연방주택금융청, BoA에 부실 모기지 배상 60억 달러 요구
- 3) 그린스펀, 미 성장둔화의 원인은 복지비용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일본,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
- 2) 동아시아(한국 포함)국가, 기후변화 대처에 연 230억 달러 필요
- 3) 세계 최고공항은 창이공항, 2위로 인천국제공항 선정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필립스, 3Q 순익 전년비 2배 이상 꺾춤
- 2) 日 소프트뱅크, 美 브라이트스타 인수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연방정부의 예산삭감, 미 경제에 악영향

- 지난 10월20일(현지시간) 잭 루 미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이 미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
 - 미의회예산국(CBO)도 예산삭감으로 인해 미국의 국내총생산(GDP)이 2014년 3/4분기까지 1.2% 감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, 이는 160만개의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고 설명
 - 그는 예산대란 피해와 관련 미국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지난 3월 발동된 예산삭감의 일환으로 정부지출이 대거 삭감되면서 경제가 침체된 상태라고 지적
- 한편 루 장관은 연방정부의 섣다운 사태에 대해 이는 경제와는 무관한 정치적인 문제로 빚어졌으며,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

2) 미 연방주택금융청, BoA에 부실 모기지 60억 달러 배상 요구

- 지난 10월20일(현지시간) FT는 미연방주택금융청(FHFA)이 BoA에 부실 모기지 판매책임을 물어 60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보도
 - FHFA는 이미 JP모간 체이스에도 4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한 바 있음
 - JP모간은 FHFA가 요구한 40억 달러를 포함, 단일기관으로는 사상 최대인 총 130억 달러의 합의금을 배상해야 함
- 한편, FHFA가 BoA에 요구한 배상액이 JP모간보다 많은 만큼 BoA가 부담해야 할 합의금 규모도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
 - BoA가 판매한 MBS는 액면가만 570억 달러에 달해 이 은행의 잠재적 위험노출액은 문제가 된 은행들 가운데 가장 큼

3) 그린스펀, 미 성장둔화의 원인은 복지비용

- 지난 10월22일(현지시간) 앨런 그린스펀 연준 전 의장이 출간한 ‘The Map and Territory’ 저서에서 미 경제가 수십 년 동안 성장이 둔화된 원인으로 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을 지적
 - 그린스펀은 섣다운 사태를 촉발한 정치권 갈등이 복지예산 증가 대응방안을 둘러싼 여·야간 대립 때문이라고 주장
-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쟁적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면서 투자 자본의 원천인 저축은 감소하고, 그 부족분을 해외에서 빌려 현재 외채가 5조 달러에 달하게 됐다고 주장
 - 또한 고소득층 과세는 새 아이디어나 기계설비, 건물 투자능력을 감소시켜 혁신과 생산성,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한다고 지적
- 한편, 그는 미국인들이 정부 의존 사회를 원하는지 국민 개개인의 자립에 기반을 둔 사회를 바라는지 택해야 한다고 언급
 - 대책으로는 복지비용의 감소와 낮은 생산성을 첨단 기술로 대체하는 ‘창조적 파괴’를 수용하고 초당파적 협력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을 제시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일본,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기록

- 지난 10월 21일(현지시간) 일본 재무성은 지난 9월중 무역수지 적자가 시장전망치인 9186억 엔보다 악화된 9321억 엔을 기록했다고 발표
 - 수출은 전년동기비 11.5% 증가한 5조 9,721억 엔, 수입액은 16.5% 증가한 6조 9,043억 엔을 기록,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이어짐
 - 수출증가율은 지난 8월중 14.6%와 시장전망치 15.6%에 모두 못 미쳤으며 수입증가율은 시장전망치 19.9%에 못 미쳤으나 8월의 16.0%는 상회
-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엔화 가치가 달러대비 11.6% 하락, 수출 주력 기업에는 도움이 됐지만, 원전 가동 중지 등에 따라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나 무역적자를 지속시켰다고 분석

2) 동아시아(한국 포함)국가, 기후변화 대처에 연 230억 달러 필요

- 지난 10월 21일(현지시간) 아시아개발은행(ADB)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, 일본, 몽골 등 동아시아 4개국이 변화하는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매년 총 23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
 -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치나 영토 면적으로 인해 기후와 연관된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노출돼있으며, 점차 덥고 습한 기후로 바뀔 것이라고 언급
 - 또한 점차 높아지는 해수면에 취약한 세계 인구 규모 10대 도시 중 상하이와 광저우, 오사카 및 고베가 포함되어있는 점도 상기시킴
- ADB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몽골은 매년 1억5천만 달러, 한국은 12억 달러, 일본은 56억 달러, 홍수에 가장 취약한 중국은 110억 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
 - 한국과 중국, 일본은 수면 상승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

3) 세계 최고공항은 창이공항, 2위로 인천국제공항 선정

- 지난 10월20일(현지시간) 여행전문 사이트 ‘Guide to Sleeping in Airport’ 의 최근 1년간 국가별 국제공항에 대한 이용자 평가 결과, 창이공항이 1위, 인천국제공항은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
 - 창이공항은 4개항의 설문조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, 17년 연속으로 최고의 국제공항에 선정
 - 인천국제공항은 빠른 와이파이 서비스와 깨끗함, 친절한 직원들과 편안한 의자가 있는 휴식공간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 2위를 차지
- 반면, 필리핀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과 이탈리아의 베르가모공항은 세계 최악의 공항에 선정
 -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은 지난 2011년 평가에 이어 또 다시 최하위를 기록
- 한편, 이번 설문조사는 공항의 편안함(Comfort), 편리함(Conveniences), 깨끗함(Cleanliness), 고객서비스(Customer Service) 등 4개 항목에 대해 평가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필립스, 3Q 순익 전년비 2배 이상 경증

- 지난 10월21일(현지시간) 필립스는 3/4분기 순익이 2억8100만 유로를 기록, 전년동기 1억500만 유로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
 -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순익 2억900만 유로를 상회하는 결과
 - 지난해 3/4분기 조명 매출은 1400만 유로 손실이었으나, 이번 분기에는 LED 제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조명 매출 1억4000만유로의 순익을 냄
- 반면, 매출은 시장 전망에 다소 못 미쳐 필립스의 3/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비 3% 감소한 56억2천만 유로로 전문가 예상치 57억4,100만 유로를 하회
 - 매출 대비 순익이 높은 기록을 보인 것은 지난해 전체 인력의 4%가 넘는 인원인 4,900명을 감원하는 등 비용절감에 따른 것
- 한편, 필립스는 지난달 발표한 15억 유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21일 시작한다고 밝힘

2) 日 소프트뱅크, 美 브라이트스타 인수

- 지난 10월20일(현지시간) 경제전문방송인 CNBC는 일본의 이동통신업체 소프트뱅크가 뉴욕에 본사를 둔 모바일 폰 유통업체인 브라이트스타를 인수할 것이라고 보도
 - 올 초 미국의 통신업체인 스프린트를 216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는 소프트뱅크의 이번 인수계약은 12억 6천만 달러로 알려짐
- 소프트뱅크는 브라이트스타를 통해 하드웨어 구매가격을 낮춤으로써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힘
 - 브라이트스타는 현재 전 세계 50개 지역에 영업망을 구축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 스프린트에만 독점적으로 모바일 기기들을 공급할 예정